08-48 (통권 326호)
2008.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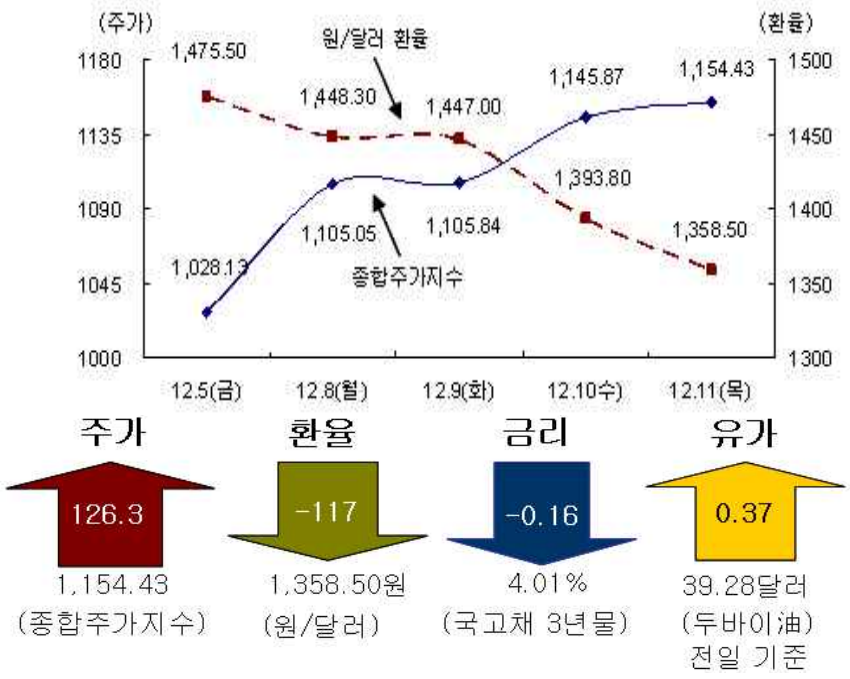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대외 여건 악화와
2009년 경제 전망 수정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5~12.1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대외 여건 악화와 2009년 경제 전망 수정 1

- 참고 1: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현 경제 위기의 비교
- 참고 2: 경제성장률 2%의 의미

주간 경제 동향 17

□ 실물 부문 : 11월 고용 시장 침체 심화 17

□ 금융 부문 : 주가, 채권, 원화의 트리플 강세 1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이 부 형 연 구 위 원 (3669-4011, lbh@hri.co.kr)
: 임 희 정 연 구 위 원 (3669-4031, limhj9@hri.co.kr)

Executive Summary

□ 대외 여건 악화와 2009년 경제 전망 수정

1. 세계 경기 급속 둔화

■ 세계 경제, 금융과 실물의 복합 불황 양상 심화

최근 세계 경제의 금융과 실물 복합 불황 양상이 심화되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첫째, 미국 금융위기가 글로벌 신용 경색을 야기하면서 세계 실물경기의 급속한 침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 독일, 일본의 2009년 경제성장률이 -0.7%, -0.5%, -0.8%, -0.2%로 주요 선진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개도국들도 6% 중반에서 5% 초반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계 교역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기 침체 동조화로 세계 전체 교역 증가율은 2008년 4.6%에서 2009년 2.1%로 2.5%p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경우 ,자산가치 하락 ,소비 침체, 투자 부진, 성장률 하락이라는 경제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일본의 장기불황과 같은 장기 경기 침체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 따라서 현 경제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경제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도 많아 대공황과 같은 장기 불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요약 맨 뒤 보론 참조)

2. 200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2%대 성장 가능성 증대

세계 경기 침체와 국내 금융 경색 등으로 실물 경기 악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내외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본다면 3%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문별 전망의 특징

민간 소비 급랭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경기 부진 등으로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나, 하반기 들어 예상되는 신정부의 재정 정책 등에 의한 소비 진작 효과와 물가 하락 등으로 소폭 개선되어 연간 0.8% 증가에 그칠 것이다.

설비투자 부진 지속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에도 북구하고 대내외 경기 침체 심화와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져 2% 초반으로 예상된다.

민간 건설투자 침체 심화 : 민간 부문은 미분양 사태 등 악재가 상존하여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규모 SOC 투자 등으로 공공 부문은 경기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2% 초반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세 급감 : 세계 경기 동반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한자리수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 증가율도 1% 미만에 그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대외거래 축소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 전환 : 세계 경기 부진으로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나, 수입 역시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하락 : 내수 경기 침체와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에 따라 비용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 국내 물가 상승률은 3% 초반대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율 불안정 지속 :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 완화로 금리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까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급등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이후 대내외 여건 호조로 원화 환율이 안정될 경우 2009년 원/달러 환율은 평균 1,200원 내외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2%대 성장 위험의 의미 : 만일 국내외 여건 악화로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우리 경제는 2%대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성장률이 2%로 하락한다는 것은 일부 경쟁력 있는 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분기별로3 번의2% 대 성장을 경험했으며, 2003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2%대 초반에 그쳤다. 이 두개 분기의 경우 건설투자를 제외한 전 경제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따라서 2%대 성장에 머물 경우 국내 경제는 체감 경기 급랭, 기업 도산, 대량 실업, 잠재 성장력 훼손과 같은 경제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시사점과 정책 과제

■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 자체가 크게 하락할 우려가 커,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내수 활성화와 수출 경기 급랭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 도모 : 최근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해져 있어 청와대, 정부 각 부처, 중앙은행, 관련 정부기관 등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 등 경제 주체의 심리 안정을 꾀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 : 물가 안정, 가계 부실 예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을 통한 소비 진작이 시급하다. 또,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 조속한 법인세율 인하 등 패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 시행을 통한 투자 활성화도 중요하다.

금융시장 안정화 : 금융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율 급변동 방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부동산 경기 급락 방지, 중소기업 자금 경색 방지 등을 통해 금융위기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재정의 역할 강화 :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수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함으로써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9.1 감세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계획된 정부 SOC 개발 투자의 조기 집행 등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필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 고용 지원 강화, 서비스업 고용 촉진,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고용 창출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고용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고용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 경기 급랭 방지 : 중국, 아세안 등 경기 부진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들도 소비의 새로운 축이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또, 중동 등 자원보유국들에 대한 패키지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출 시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조속한 시장화를 위해 정부 조달 강화, 내수 시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보조금 제도 마련 등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산업 구조의 개선 : IT 서비스산업, 제조업 지원 산업, 관광업 등과 같이 굴뚝 없는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에너지 저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경제·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 보론 >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현 경제 위기의 비교

현 경제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과 유사한 점들도 있으나 ,차이점도 많아 장기 불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공통점 : 현 경제 위기와 대공황을 비교해 보면 금융부문에서 실물 부문으로의 위기 전이, 긴축 정책과 주택가격 하락에 의한 자산가치가 하락 ,실물 부문 대비 금융 부문 악화 심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 : 단, 현 경제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과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하며 대내외 경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낼 경우, 지난 대공황 때와 같은 장기 침체 국면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초기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졌다.** 대공황 시에는 현재 FRB와 같은 중앙은행 부재로 금융 대응 면에서 다양하고 즉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는 중앙은행의 금융 대응과 중앙정부의 재정 대응이 조화를 이루면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국제 공조가 현재 위기에서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화로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이 구제금융책을 발표한 직후 EU,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공조에 돌입하였다. **셋째, 특히 금융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제 파생금융상품, 국제결재시스템 등 국제 금융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위기 발생 또는 파급을 억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대공황 시에는 미국이라는 일국 경제 의존도가 높았으나, 지금은 경제 의존도가 분산**되어 있다. 대공황 시는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전후 부흥을 꾀하던 시기로 미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세계 경제가 장기간 침체를 경험했다. 하지만 현재는EU와 일본 등 선진 지역과 중국, 아시아 등을 포함한 신흥개도국들이 충격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G20 확대회의가 개최되면서 세계 경제의 일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다섯째, 경기 하강 기간이 단축되고 확장 기간이 확대되면서 경기사이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1919~1945년 경기 하강 기간은 평균 18개월이었으나 1945~2001년 사이에는 평균 10개월로 단축되었다 .반면 동 기간 경기 확장 기간은 35개월에서 57개월로 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 순환 주기가 유지된다면 현재 위기가 대공황 보다는 수축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2009년 한국 주요 거시 경제 지표 수정 전망(2008년 12월 8일 현재) >

구 분			2008(E)					2009(E)		
			상반기	하반기			전체	상반기	하반기	전체
				3/4분기	4/4분기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3	3.8	2.0	2.9	4.1	2.2	3.8	3.1
	최종소비지출 (%)		3.1	1.7	1.2	1.5	2.3	0.9	1.2	1.1
	민간소비 (%)		2.9	1.1	0.9	1.0	2.0	0.7	0.9	0.8
	총고정자본형성 (%)		0.3	1.4	-1.0	0.2	0.3	1.3	2.9	2.1
	건설투자 (%)		-1.2	-1.3	-1.8	-1.5	-1.4	1.5	2.8	2.2
	설비투자 (%)		1.0	4.7	-0.8	2.0	1.5	1.2	3.3	2.3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3.5	-85.8	80	-5.8	-59.3	15	10	25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68	-80	63	-17	-85	20	34	54
		수출 (억 $)	2,140	1,150	1,093	2,243	4,383	2,194	2,364	4,558
		증가율 (%)	(20.4)	(27.1)	(5.8)	(15.8)	(18.0)	(2.5)	(5.4)	(4.0)
		수입 (억 $)	2,208	1,230	1,030	2,260	4,468	2,174	2,330	4,504
		증가율 (%)	(29.7)	(43.0)	(2.4)	(21.1)	(25.2)	(-1.5)	(3.1)	(0.8)
기타	소비자물가 (평균 %)		4.7					3.3		
	실업률 (%)		3.3					3.5		
	국제유가 (Dubai, 달러)		95					60		
금융	원/달러 환율 (원)	평균	1,100.0					1,200.0		
	국고채 수익률 (3년 만기, 평균 %)		5.3					4.8		

1. 세계 경기 급속 둔화

○ (개관)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 지연, 세계 경기 동반 침체, 교역량 증가율 급락 등으로 2009년 세계 경제는 극심한 침체 가능성이 증대

○ 금융위기 확대

- **복합불황** : 미국 금융위기는 2007년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되어 전 금융 부문으로 확산되어 나감
  · 이러한 금융위기 확대는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어 경기 침체가 진행되어 금융과 실물의 복합 불황으로 이어짐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심화** : 2007년 2월 HSBC 은행이 2006년 모기지 사업 관련 손실 규모를 발표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가 대두
  · 2007년 6월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증권에 투자한 헤지펀드의 파산으로 베어스턴스(Bear Sterns)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결국 2008년 3월 FRB의 자금 지원을 받는 JP모건에 인수됨

- **미국 주요 투자은행 손실 확대** : JP 모건의 베어스턴스사 인수로 진정 기미를 보이던 모기지 관련 부실이 주요 투자 은행으로 확산
  ·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으로 2008년 9월 초 미국 양대 모기지 정부지원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유동성 위기 재부상
  · 이후, 미국내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과 BOA의 메릴린치 인수 및 AIG의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 등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됨

- **파산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유동성 지원을 위해 1,2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은행지주회사로의 기업구조 변경 신청을 승인
  · 더욱이 최근 씨티그룹 또한 부실이 심해져 미국정부가 지난 11월 23일 3,060억 달러의 부실자산 지급보증과 더불어 200억 달러를 지원

○ 금융부실의 실물부문 전이

- **(경제성장률 둔화)** 글로벌 금융위기는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어 세계 경기 침체 확대로 이어짐
  - **미국** : 민간 소비 급랭과 기업 투자 부진으로 2007년 3/4분기 4.8%를 기록한 이후 2008년 3/4분기에 -0.5%로 성장 둔화
  - **일본** : 내수 및 외수의 동반 부진으로 2008년 3/4분기 -0.1% 성장을 기록
  - **유럽** : 소비부진과 수출 경기 둔화로 2008년 3/4분기에 -0.2% 성장
  - **중국** : 무역흑자 축소로 2008년 3/4분기에 9.0% 성장

<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연간(E)
세계 경기	-	-	-	-	5.0	-	-	-	3.7
미국	0.1	4.8	4.8	-0.2	2.2	0.9	2.8	-0.5	1.4
일본	0.9	-0.3	0.2	0.6	2.2	0.6	-0.9	-0.1	0.5
유로지역	0.8	0.3	0.6	0.4	2.7	0.7	-0.2	-0.2	1.2
중국	11.7	12.6	11.5	11.3	11.9	10.6	10.1	9.0	9.7

자료 : 한국은행, Ecos., BEA, European Central Bank.
주 : 미국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지역과 일본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 **(실업률 증가)** 경기 둔화가 확대되면서 주요국은 2008년 7월 전후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진행으로 2008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여 10월에는 6.5%를 기록
  - **일본** :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 10월 현재 3.7%로 9월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
  - **유럽** : 유럽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노출 정도가 심해 2008년 4월 이후 꾸준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

< 주요국 실업률 추이 >

(단위: %)

		미국	일본	유로지역
2007년	12월	5.0	3.8	7.2
2008년	1월	4.9	3.8	7.2
	2월	4.8	3.9	7.2
	3월	5.1	3.8	7.2
	4월	5.0	4.0	7.3
	5월	5.5	4.0	7.4
	6월	5.5	4.1	7.4
	7월	5.7	4.0	7.5
	8월	6.1	4.2	7.5
	9월	6.1	4.0	7.6
	10월	6.5	3.7	7.7

- **(주택시장 침체)** 주택가격의 하락은 경기 침체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 **미국** : 2008년 3/4분기에도 주택가격은 전년동기대비 17.4% 하락함으로써 2007년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임
  - **일본** : 부동산 시장이 2007년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임
  - **유럽** : 2007년에 주택가격이 4.5% 증가로
  - **중국** :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됨으로써 2008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3.5%로 경기는 1/4분기 11.0% 이후 급격히 둔화됨

< 주요국 주택가격 추이 >

(전년동기대비 : %)

	2007년	2008년		
	4/4	1/4	2/4	3/4
미 국	-9.0	-14.3	-15.9	-17.4
일 본	-1.6	-0.8	-	-1.9
유로지역	4.5	-	-	-
중국	10.2	11.0	9.2	3.5

자료 : Standard & poors, IMF, 한국은행,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일본부동산연구소.

○ 세계교역량 급감

- **교역량** : 세계 경기 침체 동조화로 인해 2008년과 2009년 교역량은 각각 4.6%,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6년 9.3%, 2007년 7.2%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교역량증가율의 IMF 전망 수치(11월)는 10월에 비해서도 급감

- **수출** : 선진국의 수출 경기는 2007년까지 4.5%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 1.8%로 둔화되고, 2009년에는 마이너스 0.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나, 2008년까지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후, 2009년에는 5.2%로 증가율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

- **수입** : 선진국의 수입은 2007년 8.4%, 2007년 5.9%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008년 4.1%, 2009년 1.2%로 급감이 예상됨
  · 개도국은 2006년 11.0%, 2007년 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8년 5.6%, 2009년 5.3%로 저조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교역량, 수출, 수입 증가율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06년	2007년	2008년(E)		2009년(E)	
				10월	11월	10월	11월
교역량		9.3	7.2	4.9	4.6	4.1	2.1
수출	선진국	7.5	4.5	1.9	1.8	1.1	-0.1
	개도국	14.7	14.2	11.7	10.9	10.5	5.2
수입	선진국	8.4	5.9	4.3	4.1	2.5	1.2
	개도국	11.0	9.5	6.3	5.6	7.4	5.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 November 2008.

○ 세계 경기 디플레이션 가능성 증대

- **디플레이션** : 사전적인 의미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나, 보통의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임
  ·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

- **경기 침체** :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경제 뿐 아니라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률도 둔화
  - **미국** : 금융위기 확대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됨으로써 경기가 둔화되어 2008년 3/4분기 -0.5% 성장을 기록
  - **일본** :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2008년 2/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유럽** : 수출과 투자 부진, 개인소비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가 확대되어 2008년 2/4분기, 3/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0.2% 성장을 기록
  - **중국** :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자산시장 버블 붕괴, 과도한 국내 투자 축소로 인한 경기 둔화로 2008년 3/4분기에는 9.0%의 성장을 기록

<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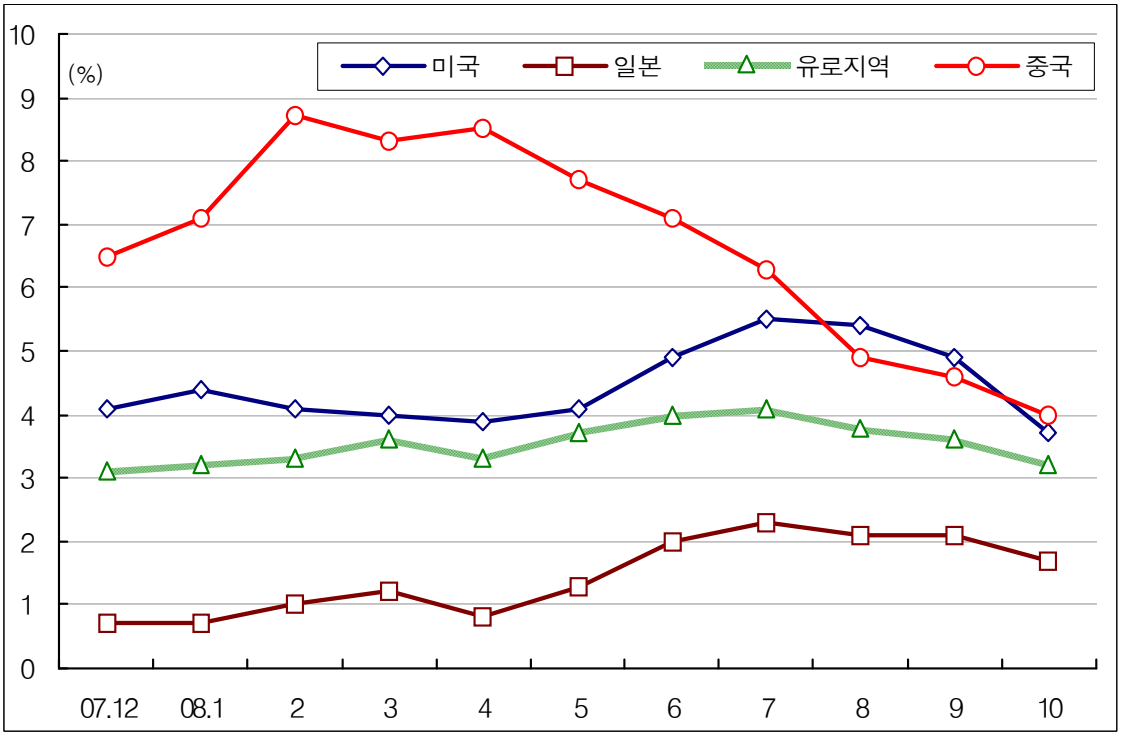
	2007	2008				2009(E)
		1/4	2/4	3/4	연간(E)	
세 계	5.0	-	-	-	3.7	2.2
미 국	2.2	0.9	2.8	-0.5	1.4	-0.7
일 본	2.2	0.6	-0.9	-0.1	0.5	-0.2
유로지역	2.7	0.7	-0.2	-0.2	1.2	-0.5
중 국	11.9	10.6	10.1	9.0	9.7	8.5

자료 : 한국은행 Ecos, BEA, European Central Bank.

주 : 미국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지역과 일본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 **물가 하락세 지속** :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7월 중순 이후 하락함으로써 각국의 물가는 7월 전후로 증가율이 둔화
  - **미국** : 2008년 10월 소비자물가는 3.7%로 7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
  - **일본** : 10월 1.7%로 7월의 2.3% 이후 하락세를 보임
  - **유럽** : 2008년 10월 소비자물가는 3.2%로 7월 4.1% 대비 0.9%p 하락
  - **중국** : 2008년 4월에 8.5%를 기록한 이후 10월에 4.0%로 4.5%p 급감

< 주요국 소비자물가 추이 >



(단위: %)

		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
2007년	12월	4.1	0.7	3.1	6.5
2008년	1월	4.4	0.7	3.2	7.1
	2월	4.1	1.0	3.3	8.7
	3월	4.0	1.2	3.6	8.3
	4월	3.9	0.8	3.3	8.5
	5월	4.1	1.3	3.7	7.7
	6월	4.9	2.0	4.0	7.1
	7월	5.5	2.3	4.1	6.3
	8월	5.4	2.1	3.8	4.9
	9월	4.9	2.1	3.6	4.6
	10월	3.7	1.7	3.2	4.0

자료 : Department of labor, European Central Bank, 한국은행.

2. 국내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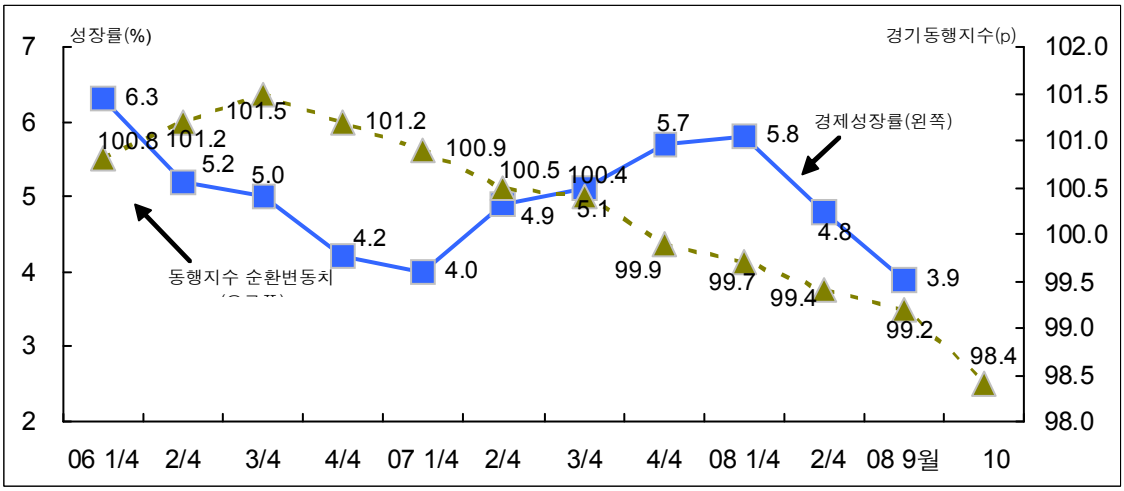
1) 현 경기 국면 판단

○ **국내 경제는 2008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성장률이 둔화되어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하였음**

- **경제 성장세 둔화** : 2008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8%로 1/4분기 5.8%에 비해 1%p나 하락하였으며, 3/4분기에도 3.9%로 2/4분기 대비 0.9%p 하락
  -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의 5.3%보다 2%p 이상 낮은 3%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 **경기종합지수 하강** : 현재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의 전환점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가 모두 하락하였음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8년 1월 101.5p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10월에는 98.4p까지 하락
  - 한편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경우 2007년 11월 7.3%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0월까지 3.2p나 하락한 -0.3%를 기록하여 향후 경기도 침체세가 지속될 전망

< 주요 경기 지표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월별 데이터임.

2) 내·외수 경기 동반 침체

○ 세계 경기 침체와 국내 금융 경색 등으로 실물 경기가 빠르게 불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동반 침체되면서 내수 부진 심화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7년 3/4분기 4.8%를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하락하여, 2008년 3/4분기에는 1.1%까지 하락

· 설비투자는 2007년 연간 7.6%의 증가율에서 2008년에는 지속 감소하여 3/4분기까지 2.2% 증가에 그침. 건설투자는 연중 지속적으로 감소

-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 경기 급속 둔화

· 2008년 3/4분기까지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수출이 10월에 전년 10월 증가율보다 14.4%p나 낮은 8.5%에 그침

· 특히, 반도체 -26%, IT -9.2%, 자동차 -13.3%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됨

- 실물 경기 침체에 따라 고용 사정 악화

· 국내 신규 취업자 수가 2008년 2월 21만 명에서 10월에는 9.7만 명으로 급감

- 내외수 경기 동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 급락

· 2008년 1/4분기 5.8%를 고점으로 지속 하락, 2008년 3/4분기에는 3.8%를 기록

< 주요 경제 지표 추이 >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경제성장률		4.0	4.9	5.1	5.7	5.8	4.8	3.8
내수		5.3	5.1	3.6	4.1	2.7	1.9	1.6
	민간소비	4.1	4.4	4.8	4.6	3.4	2.3	1.1
	건설투자	3.7	1.6	-0.1	0.4	-1.1	-1.2	-1.3
	설비투자	10.9	11.0	2.3	6.5	1.4	0.7	4.7
수출		14.6	14.1	9.4	18.2	17.4	23.1	27.1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3) 성장률 급락

ㅇ 경제성장률

- 2009년 국내 경제는 내수 격감 속 수출 경기 급랭이라는 내외수 동반 침체로 인해 연중 3.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내수 격감** : 가계부채 급증, 자산가격 하락, 고용 부진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수출 경기 급랭** : 세계 경기의 동반 침체로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리대로 급락할 전망
  - **2%대 성장률 가능성 존재** :세계 경기 동반 침체, 국내 내·외수 경기 둔화 등이 예상보다 악화되면 거의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2%대의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 존재

ㅇ 거시 부문별 전망

- **소비**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신정부의 재정 정책 등에 의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물가 상승률 하락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띨 전망

- **설비투자**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에도 북구하고 대내외 경기 침체 심화와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 양상이 이어질 전망

- **건설투자** : 민간 부문은 미분양 사태 등 악재가 상존하여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SOC 투자 등으로 공공 부문은 경기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

- **물가** : 내수 경기 침체와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에 따라 비용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물가 상승률은 3% 초반대로 안정될 것이 전망됨

- **경상수지** : 세계 경기 부진으로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나, 수입 역시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

- **금융 시장** :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따르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금리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까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08년 평균 1,100원에서 2009년에는 1,2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09년 한국 주요 거시 경제 지표 수정 전망(2008년 12월 8일 현재) >

구 분			2008(E)					2009(E)		
			상반기	하반기			전체	상반기	하반기	전체
				3/4분기	4/4분기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3	3.8	2.0	2.9	4.1	2.2	3.8	3.1
	최종소비지출 (%)		3.1	1.7	1.2	1.5	2.3	0.9	1.2	1.1
	민간소비 (%)		2.9	1.1	0.9	1.0	2.0	0.7	0.9	0.8
	총고정자본형성 (%)		0.3	1.4	-1.0	0.2	0.3	1.3	2.9	2.1
	건설투자 (%)		-1.2	-1.3	-1.8	-1.5	-1.4	1.5	2.8	2.2
	설비투자 (%)		1.0	4.7	-0.8	2.0	1.5	1.2	3.3	2.3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3.5	-85.8	80	-5.8	-59.3	15	10	25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68	-80	63	-17	-85	20	34	54
		수출 (억 $)	2,140	1,150	1,093	2,243	4,383	2,194	2,364	4,558
		증가율 (%)	(20.4)	(27.1)	(5.8)	(15.8)	(18.0)	(2.5)	(5.4)	(4.0)
		수입 (억 $)	2,208	1,230	1,030	2,260	4,468	2,174	2,330	4,504
		증가율 (%)	(29.7)	(43.0)	(2.4)	(21.1)	(25.2)	(-1.5)	(3.1)	(0.8)
기타	소비자물가 (평균, %)		4.7					3.3		
	실업률 (%)		3.3					3.5		
	국제유가(Dubai, 달러)		95					60		
금융	원/달러 환율 (원)	평균	1,100.0					1,200.0		
	국고채 수익률 (3년만기, 평균 %)		5.3					4.8		

3. 시사점과 과제

■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우려가 커,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내수 활성화와 수출 경기 급랭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함**

-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 도모**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해져 있어 청와대, 정부 각 부처, 중앙은행, 관련 정부기관 등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하는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을 꾀해야 함

- **내수 활성화** : 물가 안정, 가계 부실 예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을 통한 소비 진작이 시급
  · 또,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 조속한 법인세율 인하 등 패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 시행을 통한 투자 활성화도 중요함

- **금융시장 안정화** : 금융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환율 급변동 방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부동산 경기 급락 방지, 중소기업 자금 경색 방지 등을 통해 금융위기 확산을 방지해야 함

- **재정의 역할 강화** :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수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함으로써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책 마련이 필요함
  · 우선, 9.1 감세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국내 소비의 급격한 침체를 예방해야 함
  ·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계획된 정부 SOC 개발 투자의 조기 집행 등으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 심리를 호전시킬 필요가 있다.

- **고용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필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 고용 지원 강화, 서비스업 고용 촉진,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고용 창출력을 높여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이나 교육정책 등 타 분야의 정부 정책과 고용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고용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수출 경기 급랭 방지** : 중국, 아세안 등 경기 부진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들도 이 지역이 더 이상 생산 기지가 아닌 소비의 새로운 축이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함
  · 또, 중동 등 자원보유국들에 대한 패키지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출 시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등도 필요하다.

-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조속한 시장화를 위해 정부 조달 강화, 내수 시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보조금 제도 마련 등의 정책 노력이 필요함

- **경제·산업 구조의 개선** : IT 서비스산업, 제조업 지원 산업, 관광업 등과 같이 굴뚝없는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에너지 저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경제·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함
  · 특히 화석 연료 고갈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지속 강화해야 함

이부형 연구위원(3669-4011, lbh@hri.co.kr)
임희정 연구위원(3669-4031, limhj9@hri.co.kr)

< 참고 1 >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현 경제 위기의 비교

○ (공통점) 現 경제 위기와 1930년대 대공황은 금융과 실물의 복합불황임

- **발생원인** : 금융위기에서 시작하여 실물부문으로 전이됨
  - **·대공황** : 주식시장의 거품붕괴는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실물부문의 위축으로 전이됨
  - **·現 경제 위기**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지급불능 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됨

- **위기 진행추이** : 긴축정책 혹은 주택가격하락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함
  - **·대공황** : 긴축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여 주식 등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경기둔화를 악화시킴
  - **·現 경제 위기** :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 부동산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 부문 침체로 이어짐

- **높은 금융 비중** : 두 위기 모두 금융부문이 실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대공황** : 1929년에 신규투자는 32억 달러인 반면, 주식의 명목가치는 870억 달러였음
  - **·現 경제 위기** : 2007년의 국내총투자액은 1조 8,754억 달러였으나, 2007년말 미국 주식가치는 18조 6,634억 달러에 달하고 세계 장외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2007년말에 596조 달러임

○ (차이점) 現 경제 위기와 대공황은 초기 대응, 국제 공조 등에서의 상이점으로 보이고 있음

- **신속한 초기 대응** : 현 경제 위기 시에는 중앙은행의 금융 대응과 중앙정부의 재정 대응이 조화를 이루면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짐
  - ·대공황 시에는 현재 FRB와 같은 중앙은행 부재로 금융 대응 면에서 다양하고 즉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함

- **국제 공조** : 글로벌화의 진행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짐
  · 미국이 구제금융책을 발표한 직후 EU,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공조에 돌입

- **금융시스템 재구축** : 금융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추진됨으로써 금융위기 진화에 긍정요인으로 작용
  · 특히, 국제 파생금융상품, 국제결재시스템 등 국제 금융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위가 발생 또는 파급을 억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이 적극 동참

- **경제 의존도 분산** : 대공황 시에는 미국이라는 일국 경제 의존도가 높았으나, 지금은 경제 의존도가 분산됨
  · 대공황 시기는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전후 부흥을 꾀하던 시기로 미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세계 경제가 장기간 침체를 경험
  · 하지만, 현재는 EU와 일본 등 선진지역과 중국, 아시아 등을 포함한 신흥개도국들이 충격 완충 역할을 함
  · **GDP 비중** :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은 2001년 32.0%에서 2007년에는 25.3%로 낮아진 반면, 유럽은 19.9%에서 22.3%로 증가, 중국은 4.2%에서 6.0%로 증가하여 경제 의존도가 분산되고 있음

< 주요국의 세계 GDP 대비 비중 추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세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럽	19.9	20.9	22.9	23.3	22.4	21.9	22.3
중국	4.2	4.4	4.4	4.6	5.0	5.5	6.0
일본	12.9	11.9	11.4	11.1	10.1	9.0	8.0
미국	32.0	31.8	29.6	28.0	27.6	27.1	25.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8.

- **경기 하강 기간 단축** : 경기 하강 기간이 단축되고 확장 기간이 확대되면서 경기 사이클이 변화하고 있어 현 경기의 하강기도 짧을 것으로 보임
  -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1919~1945년 경기 하강 기간은 18개월이었으나 1945~2001년 사이에는 10개월로 단축됨
  - 반면, 동 기간 경기 확장 기간은 35개월에서 57개월로 늘어남

< 미국의 경기 사이클 평균 기간 및 추이 >

(단위: 개월)

기간	회수	축소기	확장기
1854년~2001년	32번	17	38
1854년~1919년	16번	22	27
1919년~1945년	6번	18	35
1945년~2001년	10번	10	57

자료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DB.

○ **(종합)** 현 경제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과 금융과 실물의 복합불황이라는 유사점이 있으나, 신속한 초기 대응, 국제공조, 미국의 경제 의존도 저하, 금융시스템 재구축, 경기 하강 사이클 단축 등으로 장기 불황 가능성은 낮음

< 참고 2 > 경제성장률 2%의 의미

- 경제성장률이 2%로 하락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이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
  - 경제성장률 2%는 4% 중반의 잠재성장률의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한다는 것임

-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분기별로 3번의 2%대 성장을 경험했으나, 2% 초반에 그친 것은 2003년 2~3/4분기 사이임

· 한국의 경우, 197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연간 2%대로 떨어진 것은 1980년 제2차 오일쇼크(-1.5%) 때와 1998년 외환위기(-6.9%)의 2개년에 불과함

- 2% 성장 시 거시지표 상으로는 건설투자를 제외한 전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 2% 성장한다는 것은 모든 지표들이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2% 성장은 기업 경영 악화, 고용 부진, 소득 감소 등으로 체감경기가 매우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함

· **부도업체수 증가** : 두 분기 연속으로 2%대 성장률을 보였던 2003년의 부도업체수가 5,308로 2004년~2007년 기간 중 평균인 3,171개보다 2,137개 많은 것은 저성장의 위험을 간접적으로 보임

· **신용불량자 증가** : 2003년에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는 372만명으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260~270만명, 2005년 기준)을 상회

· 한편 주요 선진국들이 2% 성장세를 보인다는 것은 다른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 뿐 아니라 체감경기 또한 양호한 상태여서, 한국과는 2% 성장이 주는 의미가 전혀 다름

< 2%대 성장 시 주요 거시 지표 추이 >

구 분	2003년		2005년	2008년
	2/4분기	3/4분기	1/4분기	3분기
경제성장률	2.2	2.3	2.9	3.8
민간소비	-1.5	-2.0	1.6	1.1
건설투자	7.9	7.7	-3.3	-1.3
설비투자	-0.4	-4.6	3.8	4.7
부도업체 (개)	5,308(2003년)		4,445(2004년)	-
신용불량자 (명)	372만 (2003년)		297만(2004년)	-

자료 : 한국은행.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11월 고용 시장 침체 심화

○ 11월 고용률(취업인구비율)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고, 신규취업자 증가는 7만 8천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 미만을 기록함

-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면 내수 경기 상황을 반영해 주는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5만 2천명과 7만 7천명이 감소됨

- 한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자 중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하는 '구직 단념자'는 1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천명 증가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가 각각 4만 8천명, 13만 3천명을 기록하여 청년 실업률이 매우 심각함

-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고용 시장의 악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3/4	10월	11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3.8(0.5)**	-	
경기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1	-3.7	
경기	수요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6.1	-7.7	
경기	수요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22.8	-23.9	
경기	수요 수출	14.4	14.1	9.4	18.2	17.4	23.1	27.1	8.5	
경기	공급 광공업생산	8.4	6.8	5.9	10.8	10.6	8.6	5.6	-2.4	
경기	공급 취업자수(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73	2,385	**2,382**
경기	공급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0	3.0	**3.1**
경기	공급 수입	18.4	15.3	7.3	25.9	28.9	30.5	43.0	10.4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54	60	44	32	-52	-1	-86	49	
대외거래	무역수지(억$)	161	146	45	27	-65	3	-80	-20	
물가	생산자물가	0.9	1.4	1.2	3.0	5.1	9.0	11.3	10.7	7.8
	소비자물가	2.2	2.5	2.3	3.4	3.8	4.8	5.1	4.8	4.5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주가, 채권, 원화의 트리플 강세

○ (해외 금융 시장) 글로벌 달러화 약세

- **금리** : 미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 입찰 실시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이 강화되면서 전주말 대비 약보합 시현 (국채 10년물 : 2.70→2.68%)
- **환율** : 달러화는 유럽증시의 호조의 영향으로 유로하에 약세를 보였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속되면서 엔화에 대해서도 약보합 시현 ($/€ : 1.2716→1.3023, ¥/$:92.84→92.77)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채권, 원화의 트리플 강세

- **주가** : 오바마 당선자의 신뉴딜 정책 발표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1,028.0→1,154.4)
- **금리**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치인 1%p 낮추어 3%로 조정함에 따라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4.17→4.01%)
- **환율** : 일일 거래량 부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순매수세에 따른 달러화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1,475.5→1,358.5)

○ (전망)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트리플 약세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4	3/4	4/4	1/4	2/4	3/4	12.5	12.11
국내	거래소 주가	1,743.6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028.0	1,154.4
	국고채3년(%)	5.26	5.46	5.74	5.10	5.90	5.74	4.17	4.01
	원/달러	923.8	915.1	936.1	990.4	1,046.0	1,207.0	1,475.5	1,358.5
해외	DOW	13,409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635	8,761
	Nikkei	18,138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7,917	8,660
	미국채10년(%)	5.02	4.59	4.02	3.87	3.97	3.82	2.70	2.68
	일국채10년(%)	1.88	1.69	1.51	1.45	1.60	1.47	1.38	1.42
	달러/유로	1.3542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2716	1.3023
	엔/달러	123.18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92.84	92.77
	두바이($/배럴)	66.42	76.64	89.06	97.66	136.65	90.60	40.08	39.96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2.10) 기준.